

>>>> 채란업 현실 및 위기극복 방안

장 · 단기 양계정책 수립이 우선

1. 침체된 양계산업 현실

2007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2008년도부터는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 축산인들 모두 경기가 좋아져서 어려웠던 일들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07년 말 60% 이상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나왔고 실물경제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어 사료 값, 난좌 값,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비가 쯤쨌 뛰어오 계란소비도 늘고 계란가격도 인상되어 양계인들에게 청신호가 켜졌나 했는데 대통령 취임한지 두 달도 안돼서 공교롭게도 뜻하지 않게 고병원성 AI가 터져 우리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그러한 와중에 AI 피해 대책은 뒷전에 밀리고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미비한 협상이 광우병 시비를 몰고와 촛불시위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마스크에서의 AI의 과잉보도는 소비자로 하여금 양계산물을 외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오 세 을

경기도산란계지부연합회장

2. 특수노린 과잉입추로 전망 어두울 것

소비침체는 계란, 닭고기 체화를 불러왔고 가격마저 폭락하여 양계인들은 망연자실에 빠져있다. 지금

의 형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며 사료 값은 2개월이 멀다하고 인상이 되어 지금은 1년 전에 비하여 100% 이상의 사료 값이 인상 되고 있다. 거기다가 일부 농가에서는 2004년 AI 특수를 누린 향수에 젖어 닭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AI 피해로 닭 숫자를 산란계만 350만 수이상 매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50~60만 수이상 추가 입추를 하여 매몰 처분한 닭 숫자를 벌써 상회하고 있어 2008년도는 물론 2009년까지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양계인들에게는 힘든 나날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는 물론 외국의 경제전문가들마저 한국 경제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가게점포마다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촛불시위는 온 국민의 불만 표출로 온 나라를 흔들고 있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3. 양계인의 자구책이 필요

양계업을 40여년 해오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너무나 엄청난 이 불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암담하다. 그렇다

고 손발을 놓을 수도 없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어려움은 양계인 스스로 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10%~20%의 닭 숫자를 우리 스스로 줄여서 제 값 받기의 계란, 닭고기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화장(중계업자들도) 관계자를 하루 빨리 만나서 생산조절을 이루어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양계협회에서는 협회장을 위시하여 양계발전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병아리면 병아리, 사료면 사료, 유통까지도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지금의 대안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리고 양계인들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닭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계는 과감히 도태 하여야 한다.

그동안 AI 여파로 온 국민들은 AI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부진의 늪을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시켜 계란, 닭고기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AI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우리협회에서는 정부당국으로 속히 경영 개선자금 등 도울 수 있는 모든 정책 플랜을 제시 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소비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요청으로 생산을 책임지는 우리 양계인들의 활력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지금 대다수농가들은 환경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로 인하여 화학비료 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 농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업체에서는 유박이라는 것을 수입을 하여다가 농민들에게 공급하는데 유기질 비료까지 사다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수입을 해오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생산하는 계분 유분등을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한다면 환경개선은 축산농가의 소득원이 되어 어려운 축산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

다. 물론 정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시설자금, 법령개정, 무허가 농가들이 비료 생산제약 등 많이 있다. 이것을 조사하여 모든 것을 완화하고, 제도화 한다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무더운 여름 생산농가에서는 철저하게 사양관리를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여 손실을 적게 보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며,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명언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양계업을 정성스레 버틸 때 고유가 곡물급등 세계적인 원자재 난을 극복 우리 양계업이 글로벌 시대에 지탱할 수 있는 양계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바람막이 축산 정책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우리 양계인들의 아픔을 지워 주어야 할 것이다. **양계**



양심 & 정직

자동화 계사 물청소 전문

양계장 물청소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이제 Y&J로 연락주십시오

대표 : 양승호

사무실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796

전화 : (055)963-7264 휴대폰 : 010-5137-7264

팩스 : (055)963-7265 010-9388-7264

